



8주차 | 학습목차



학습목차	01.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침몰이 사회적 참사로 진행된 당시 상황 • 부모와 희생자 자녀의 마지막 연락 	04. 진상규명 활동과 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법 등 진상규명 활동 과정 • 피해자들의 노력과 활동모습
학습목표	02. 진도의 혼란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사 직후의 진도, 안산의 상황과 피해자의 이야기 •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서 가족 모임이 만들어진 과정 	05. 사회적 참사가 된 세월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족의 특별법 촉구 활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 세월호 참사의 피해 현황
학습내용	03. 유가족의 슬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은 상황과 가족들의 심정 • 자녀 수습 과정의 슬픔 	06. 피해자 혐오와 치유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향한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 기억과 추모의 어려움과 유가족의 삶

8주차 |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3차시

유가족의 슬픔

8주차 | 학습목표

3차시. 유가족의 슬픔



학습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4월 16일 직후 진도의 혼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 유가족의 분노와 슬픔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은 상황과 가족들의 심정 ■ 자녀 수습 과정의 슬픔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은 상황과 가족들의 심정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3차시 유가족의 슬픔



구조하지 않는 현장

“박근혜 대통령 왔을 때, 그때부터 고위급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었고. 그 우린 모르죠. 누가 누군지, 누가 서장인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서장이었고 구가 청장이었고 이런 것들을 알고. 근데 그 사람들 잡고 가장 하는 얘기는 하소연이죠. 빨리 좀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실지로는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상황들 지금 보면서도 밝혀져 있잖아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

[출처01] 『그날을 말하다 - 세희 아빠 임종호』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3차시 유가족의 슬픔



구조하지 않는 현장

“진짜 그 모니터에서 나오는 그 뉴스 보도하고 우리 진도체육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한숨) 맞지 않는다는 거를 보고 아, 우리를 고립시키는 거라는 느낌도 들고 (한숨) 저거는 오보라고, 저거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제발 기사 좀 똑바로만 써달라고 있는 그대로만 보내달라고 포장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티비에 나오는 거는. ……(울음) (한숨)”

[출처02] 『그날을 말하다 - 세희 엄마 배미선』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3차시 유가족의 슬픔



구조하지 않는 현장

뭐 잡고 협박도 해보고, 때려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작업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파도 하나 없는 잔잔한 그 물살이었는데도 아무것도 안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만 들죠.”

[출처01] 『그날을 말하다 - 세희 아빠 임종호』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3차시 유가족의 슬픔



구조하지 않는 현장

“천막이 생기고 언론 차들 계속 막히고 들어오고. 미어터지는 거야. 움직이면 사람 부딪히는 거야. 도저히 안 돼. 나중에는 뭐 누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얘기해주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저 속에 들어가 있자. 담요 나눠주는 거 받고, 근데 이 담요마저도 내가 두르는 게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도 내 새끼는 물속에, 물속에 있는지 물 밖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서 구조가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미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벌써 뭔지 모르지만 알고 있었던 거 같애. 근데 이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고 그 당시에. ‘너는 올 거야. 너는 올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애, 그 당시에.”

[출처03] 『그날을 말하다 - 경주 엄마 유병화』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3차시 유가족의 슬픔



구조하지 않는 현장

“3일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 이제, 아예 희망이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 있을 거라는 희망. 처음에는 진짜, 그 첫날 시신 올라오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아니기를 굉장히 바라는 사람들. 시신이 올라왔더니. 아니, 내 아이는 배 속에 살아 있을 거라는 희망들 때문에. 근데 완전히 가라앉고 나서는 희망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차가운 바다 속에 아이들이 살아 있을 거라는 희망이 없어지면서, 이제 시신이라도 빨리 건져달라고 그런 애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딱 가라앉으니까는 정부에서 아예 작업 조차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출처04] 『그날을 말하다 - 세희 아빠 임종호』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3차시 유가족의 슬픔



진도대교 행진과 차단

그러면 “청와대로 우리가 직접 가겠다” 나중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으로 가면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아이들을 [구조]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분명히 대통령은, 이 나라 대통령은 자기가 언제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부모님들이 원한이 남지 않게 하겠다고 한 사람이 지금 밑에 사람들은 이 모양인데 그럼 대통령 직접 만나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출처05] 『그날을 말하다 - 경주 엄마 유병화』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3차시 유가족의 슬픔



진도대교 행진과 차단

“그 상황실이라는 전화가 청와대랑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웃었어요, “아, 그래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와 가지고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 그랬는데 이 상황실이라는, 이 조그만 상황실이라는데 이 전화가 일반전화 유선이 청와대로 연결이 안 돼 있다고요? 그럼 당신 핸드폰으로 하십시오. 청장이니까 되겠지요. 청와대 비서실을 하든, 하세요” 앞에서 아버님들이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제가”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눈이 돌죠, 다….”

[출처05] 『그날을 말하다 - 경주 엄마 유병화』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3차시 유가족의 슬픔



진도대교 행진과 차단

“진도대교 걷는다고 나갔었어요. 나는 그때 신발도 잃어버렸었어요. 내가 신고 간 신발을 잃어 버린 거야. 토요일 날에 없어졌나봐요. 우리 갈 때 아이들 이름도 부르고 그랬거든요. 부르면서 내가 오늘 저녁에 걷고 나면 재강이가 나한테 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우리가 계속 거기서 이제 몇 날 며칠 거기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잖아요. 걸으면서 줄려 죽-겠는 거야. 그래서 잠깐 쉴 때 이렇게 난간에 앉아서 쉬면 앉아서 졸다가. 다른 사람들은 막 가족끼리 나와서 걷는데 저는 혼자 나갔잖아요, 아빠는 안산에 올라와 있고. 그런데 우리 반 애 엄마랑 같이 걸었어요. 뒤에 앉으신 분이 우리 반이라는 걸 알고 그 엄마랑 이모랑 셋이 뒤에 따라 걸었거든. 그분들하고 같이 걸었기 때문에 그나마 걸었을 수도 있었어요.”

[출처06] 『그날을 말하다 - 재강 엄마 양옥자』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3차시 유가족의 슬픔



진도대교 행진과 차단

“거길로 안 가고 옆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옆으로 돌아왔더니 진도 구길인데 다시 일로 와서 바리케이트를 또 친 거예요. 그런데 아빠들이 먼저 섰는데 나중에는 바리케이트를 못 뚫으니까. 의경들이 딱 서 있으면 못 뚫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앞장서라더라고, 엄마들이. 앞장서서 어쨌든 뭐 애네들하고 싸우든 어쨌든 막 산 이런 데 풀밭 같은 거 있잖아, 막 그런 걸 헤치고 막 들어갔어요, 넘어갔어. 개네들을 뚫었는데. 우리 이쪽을 뚫으면 뭐냐고 뒤쪽에 또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길 가는 길, 신길 가는 길, 대교에서 오는 길 여기에 우리를 몰아 넣은 거죠, 부모들을.”

[출처07] 『그날을 말하다 - 재강 엄마 양옥자』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3차시 유가족의 슬픔



진도대교 행진과 차단

그래서 학생들이나 뉴스타파한테 이거 꼭 계속 홍보하라고. 지나가는 학생들 등교하더라구요. “학생, 우리 이런 세월호 가족, 엄마, 아빤데 이거 좀 제발 멀리 좀 알려줘. 이것 좀 우리 억울한 것 좀 알려 줘. 알려 줘. 계속 학교 가면서도 학교에도 얘기 좀 해주고, 방송사에도 좋으니까 얘기 좀 해줘, 얘기 좀 해줘” 빌면서 갔어요. 너무 우리는 다급했기 때문에.”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에게 항의하는 실종자 가족들

[출처08] 『그날을 말하다 - 유민 아빠 김영오』 [출처10] 경향신문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3차시 유가족의 슬픔



진도대교 행진과 차단

“대교 앞에 갔는데 벌써 [색깔이] 노래, 경찰들이. 이 쪽 길이 있길래 이쪽으로 돌아갑시다해서 갔어요. 그 길도 노랑게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고 막 가면서 홍보를 뉴스타파에서 내보내고 엄청나게 하니깐 대교 앞에 갔는데 도로 한 2~300미터가 차로 꽉 차 있는 거야. 기자들. 그때 CNN, NHK 다 와 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알리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언론에도 알리고 싶었어요.”



진도대교로 향하는 도로를 봉쇄한 경찰들과 대치 중인 실종자 가족들

[출처08] 『그날을 말하다 - 유민 아빠 김영오』 [출처09] 광주드림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3차시 유가족의 슬픔



진도대교 행진과 차단

“제일 먼저는 믿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내 아이가 거기 있을 거라는 생각이 실감이 안 나, 실감이. 거기 있는 건 아는데 내 자신도 피부로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 바다에 가 있어서 이렇게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 뭐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서만 이렇게 바라보는데 배 이렇게 뒤집혀 있는, 앞궁텅이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들 보는데... 무기력감이 사람이, 아무것도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 아이가 저기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일을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잠수를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뭐 별 생각 다하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출처11] 『그날을 말하다 - 승목 엄마 은인숙』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3차시 유가족의 슬픔



아이의 수습

“4일 정도 됐을 땐가. “승목아... 그냥 승목이...(울음)
이제는 우리 곁에 오는 것만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러더라구요. (울음) 그전까지 아기들,
음 살아 돌아오는 아기가 아무도 없었으니까. 음... 이제부터는 우리 곁에 오는 것 만해도 감
사하게 생각하자 그렇게 이야길 하더라구요.
아,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뭐라 그럴까 들려오지도 않았고, 그냥 믿겨지지 않았고, 제 마음속
에는 ‘우리 승목이는 선생님들과 같이 있을 거고’ 일주일, 열흘까지도 저는 미련을 못 버리
구요, 아니면 ‘구명조끼 입고 있었으니까 나와 갖고 어디 섬에라도 있을 거다. 지금 핸드폰들
도 없으니까 연락이 안 될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구요.”

[출처12] 『그날을 말한다 - 승목 엄마 은인숙』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3차시 유가족의 슬픔



아이의 수습

“눈물이 마른 줄 알았는데. 승목이를 보는데 (흐느낌) 어, 눈 주위가 시퍼렇고요
얼굴에 상처가 있더라구요. 안고 싶고 만지고 싶은데 못 안게 하더라구요. (울음)
못 안게 하더라구요. (울음)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에서 쓰러졌나봐요.”
“재강이가 56번을 달고 나온 거예요. 56번. 빨리 나온 거지.
나는 이제 그것만으로도 고맙더라고. (울음) 늦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가지고 그냥 애한테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아니 애를 내가 안아서라도 보내줘야지, 내가 안아보고라도 보내줘야지.”

[출처14] 『그날을 말한다 - 세희 엄마 배미선』 [출처15] 『그날을 말한다 - 세희 엄마 배미선』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3차시 유가족의 슬픔



아이의 수습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승목이 맞다고. 아니길 바랐는데 (울음)
그래도 식구들은 그게 위로의 말이라고, 이제는 위로의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나마 못 올라오는 그때 뜬문뜬문 올라왔으니까 계속 올라온 게 아니고.
어... 어... 그렇게 해서 어... [남편이] 승목이 보고 싶냐고 [그러길래]
나 봐야겠다고 승목이 얼굴 봐야겠다고 고집 피워서
제가 팽목으로 승목이 보러 갔어요.”

[출처13] 『그날을 말한다 - 재강 엄마 양옥자』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3차시 유가족의 슬픔



아이의 수습

“아이들이 처음에 올라올 때 구명조끼를 입은 아이도 있고 안 입은 아이도 있고
웅크려서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아 처음에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부모들이 항의를 하니깐 어떤 자식은 입고 어떤 자식은 구명조끼를 안 입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벗기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펴고, 단정하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숨) (울음)
우리 세희가 169번째로 나왔는데 그 전날에 그 나오는 날 아침에 25일 날,
아침에 나비가 한 마리가 저희 자리를 맴돌았어요. 저희 자리를 맴돌다가 갔어요. 갔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자리는 나비가 없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세희가 왔어요.”

[출처15] 『그날을 말한다 - 경주 엄마 유병화』

8주차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의 말하기 | 3차시 유가족의 슬픔



아이의 수습

“(울음) 올라오면서 너무 미안했어요. 내 자식만 찾아서 와서 진짜 미안하고 미안하다고, 먼저 가서 죄송하다고. 옆에 있는 부모님들은 축하한다고, 일찍 찾아가서 축하한다고. (울음)”

“죽어 돌아온 자식이 먼저 왔다고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참 웃기는 거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출처16] 『그날을 말하다 - 경주 엄마 유병화』

SOURCES



- [출처11]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승목 엄마 은인숙』, 한울, 2019, 88쪽
- [출처12]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승목 엄마 은인숙』, 한울, 2019, 89쪽
- [출처13]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재강 엄마 양옥자』, 한울, 2019, 85쪽
- [출처14]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세희 엄마 배미선』, 한울, 2019, 85~86쪽
- [출처15]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세희 엄마 배미선』, 한울, 2019, 87쪽
- [출처16]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경주 엄마 유병화』, 한울, 2019, 98쪽

SOURCES



- [출처01]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세희 아빠 임종호』, 한울, 2019, 88~89쪽
- [출처02]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세희 엄마 배미선』, 한울, 2019, 84쪽
- [출처03]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경주 엄마 유병화』, 한울, 2019, 56~57쪽
- [출처04]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세희 아빠 임종호』, 한울, 2019, 90쪽
- [출처05]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경주 엄마 유병화』, 한울, 2019, 90쪽
- [출처06]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재강 엄마 양옥자』, 한울, 2019, 81~82쪽
- [출처07]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재강 엄마 양옥자』, 한울, 2019, 83쪽
- [출처08] 4·16기억저장소 기획, 『그날을 말하다 - 유민 아빠 김영오』, 한울, 2019, 119~120쪽
- [출처09]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455313>
- [출처10]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404200831511>



기획·조정
이봉규·정다영

교안
이유정·윤승희

영상
김록현